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손흥민(맨 앞)을 비롯한 선수들이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손흥민 “이제 어리지 않다 기성용과 팀 이끄는 위치”

“아직 준비 시간 충분...잠잘때도 월드컵 꿈 꿔”

손흥민(26·토트넘)의 24시는 오뎅이 월드컵에 맞춰져 있다. 4년 전 이끈 기억이 두 번째 월드컵을 앞둔 손흥민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2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이 끝난 뒤 “시즌이 막바지로 가면서 월드컵 생각을 많이 했다. 월드컵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했다”면서 “아직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만, 잠을 잘 때도 월드컵 꿈을 꾸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손흥민의 첫 월드컵은 2014년 브라질 대회다. 당시 홍명보 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이끈 한

국은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겼지만 알제리(2-4), 벨기에(0-1)에 연거푸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탈락이 확정된 뒤 손흥민이 굵은 눈물을 쏟아낸 장면은 여전히 회자된다. 기대주에서 어엿한 에이스로 성장한 손흥민은 “부담보다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제 어린 선수도 아니다. (7)기성용 형과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위치”라면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부담으로 안 느낀다. 견뎌 내야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의지한 모습을 보였다. 약관의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 이승우(베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아직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이승우는 예비 엔트리에 깜짝 승선해 러시아행을 노린다. 손흥민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신감도 좋은 선수”라면서 “옆에서 잘 도와주면 충분히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승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 권창훈(다중)의 부상을 두고는 무척 아쉬워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권창훈과 오랫동안 생활해서 얼마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많은 선수인지 알기 때문”이라며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확인하니 심하게 다친 것 같더라”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 “이근호 부상 안타깝다...대체 발탁 없다”

오른쪽 무릎 내측부인대 파열...6주 안정 필요



신태용호에 또 비상이 걸렸다. 주전 공격수 이근호(강원)가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이근호는 정밀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 내측부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6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태용 감독은 권창훈, 염기훈, 김민재에 이어 이근호까지 대표팀 내 부상자 속출로 관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신태용 감독은 이근호를 대체할 선수는 발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엔트리로 월드컵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호의 월드컵 출전이 좌절된 데 대해 신태용 감독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근호 선수는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마음으로 또 대표팀 최고참으로 대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태용 감독은 또 이근호의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기존의 선수들을 최

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용 감독은 “공격수 명단은 3명 뿐이지만 문선민, 이승우, 구자철 이런 선수들이 투톱으로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선수들도 공유했을 수 있는 전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추가 발탁 없이 현재의 명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근호가 진단 결과가 나온 뒤 트레이닝 센터를 나가면서 선수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다. 분위기가 다운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근호가 나가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선수들도 이근호 뒤통지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라며 “선수들이 힘을 뭉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구대표팀의 본격적인 훈련은 23일부터 시작된다. 선수들은 22일 메디컬 테스트와 방송용 프로 필 사진 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시행되는 비디오 판독(VAR·Video Assistant Referee)에 대비한 교육을 받는다. 뉴스스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초청게이트볼대회 ‘성료’

제10회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초청게이트볼대회가 전라북도게이트볼협회(회장 김원식)주최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정읍시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는 강원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국에서 130여개 팀 선수 임원 약 1천여 명이 이틀간 대성황을 이뤘다.

이 경기에 심판원 인원 수 역시 120명이 참석, 한 경기에 주심, 부심, 기록원까지 3명의 심판원으로 이루어져 3심제로 원활한 경기를 진행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5명의 심판원으로 구성 5심제로 진행, 강원도 황성팀과 전남 담양팀이 그야말로 불꽃튀는 접전 끝에 10대 9의 근소한 점수 차로 강원도 황성팀이 전국을 휩쓰는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준우승에 그친 담양군 팀 감독 김용근(최규대 주장, 김종덕, 윤송춘, 박해덕, 김원택, 국문호 선수)은 “상대 팀의 실력을 인정하고 축하하며 승패를 떠나 동료인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며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화기 애애한 분위기가 경기장에 긴장을 풀어주어 너무 좋았다.”고 말해 게이트볼 선수로의 스포츠맨십을 발휘했다.

또한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남 영광팀 감독 김영선(유정인 주장, 박행화, 유초인, 이명순, 김홍숙 선수)은 장려상에 그쳤지만 전국 출전 팀 중 가장 최연소 선수들로 팀을 구성, 실력도 출중했지만 이틀간 경기장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며 인기 있는 팀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김일

130개팀 1천여명 정읍시 이틀간·전남 2개팀 입상



右, 우승을 차지한 강원도 황성 팀과 左, 준우승 전남 담양 팀 최규대 주장, 김종덕, 윤송춘, 박해덕, 김원택, 국문호 선수가 시상을 마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념촬영을 했다.



장려상을 차지한 전국 최연소 영광을 분회(유정인 주장, 박행화, 유초인, 이명순, 김홍숙 선수)여성 팀.

호 사무국장은 “점 차로 준우승에 그쳐 아쉬움은 있지만 전국 130개 팀이 출전해 전남이 2개 팀이 입상을 한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며

“입상한 선수들은 물론 탈락한 팀에게도 위로와 수고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홍재 기자

정현, 프랑스오픈 시드 받는다

메이저대회 한국선수 최초...세계랭킹 20위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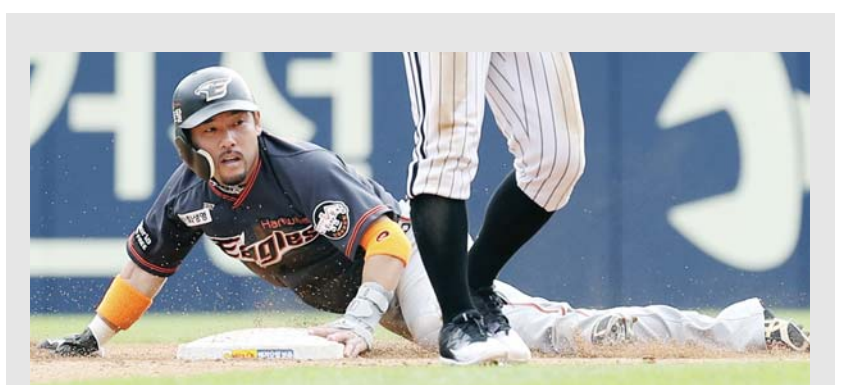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한국체대·20위)이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시드를 받는다.

정현은 21일 발표된 남자프랑스오픈(ATP) 단식 세계랭킹에서 지난해와 같은 20위를 지켰다. 이날 발표된 랭킹에 따라 27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그랜드슬램 대회인 프랑스 오픈(총상금 3919만7000유로·499억원5000만원)의 시드가 배정된다. 정현은 남자 단식에서 상위 32명에게 주어지는 시드를 챙겼다. 3계단 상승한 니시코리 케이(일본·21위)보다 한 계단 위에 위치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높은 시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오픈은 세계 톱랭커들이 대부분 빠짐 없이 출전한다. 세계 2위 로저 페더러(스위스) 정도만 불

참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랭킹 순으로 시드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현은 19번 시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현은 올해 1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한국인 메이저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랭킹도 급상승했다. 지난해 프랑스오픈에서는 당시 메이저대회 개인 최고인 3회전(32강)까지 올랐다. 시드 배정을 받은 니시코리와 맞붙어 접전 끝에 2-3으로 졌다. 정현은 당시 세계 67위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시드를 받는 선수로 성장했다. 정현은 프랑스 오픈에 앞서 20일 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ATP 투어 리옹 오픈(총상금 50만345유로)에 나서 현지 적응력을 높이고 경기력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 다.

지소연 “첼시서 2년 더 2020년까지 계약 연장



‘날쌘돌이’ 이용규, 14년 연속 10도루

이용규(33·한화 이글스)가 리그 사상 4번째로 14년 연속 10도루에 도전한다. 20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6회 팀 동료 정근우와 2중 도루를 시도해 3루에 안착하며 시즌 8번째 도루를 기록했다. 8도루를 기록 중인 이용규는 2개의 도루를 추가하면 2015년 박용택(LG) 이후 3년 만에 KBO리그 통산 4번째로 14년 연속 10도루를 완성하게 된다. 최다 연속 시즌 10도루는 전준호(히어로즈)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기록한 18시즌이다. 정수

근(롯데)이 1995년부터 2008년, 박용택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4시즌 연속으로 달성했다. 2004년 LG에 입단한 이용규는 데뷔 첫 해 도루 1개에 그쳤지만 이듬해인 2005년 31도루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 도루를 달성해왔다. KIA 소속이던 2012년에는 44도루로 자신의 최고기록을 세우며 도루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09년(50경기)과 작년(57경기)에는 부상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10도루를 올리며 연속 시즌 두 자릿수 도루를 이어갔다.

한국 여자축구의 ‘헤이스’ 지소연(27)이 첼시 레이디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첼시는 2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소연과의 계약 기간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소연은 첼시에서 6년간 뛰게 됐다. 지소연은 고베 아이나(일본)를 거쳐 2014년 국내 여자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하며 첼시와 계약을 맺었다. 지소연은 “첼시에서 2년간 더 뛰고 싶어 기쁘다”며 “팀 동료와 스태프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첼시에서 선수로서 많이 발전했다. 첼시 유니폼을 입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소연은 첼시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팀이 시즌 ‘너블’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21일 열린 리버풀과의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 마지막 경기에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며 팀을 무패(13승 5무) 우승으로 이끌었다. 지소연은 올 시즌 정규리그 6골을 포함해 28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다.